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성격강점 및 덕목 분석

문 용 린¹⁾ 원 현 주²⁾ 백 수 현³⁾ 안 선 영⁴⁾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부모가 기술한 아동의 성격강점 내용을 분석하여 그 대상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성격기술용어들을 추출해 보고, 추출된 용어들이 기존의 성격강점 분류체계인 VIA(Values in Action)에 비추어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특히 한국 고유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남 소재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 183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격뿐만 아니라 사소한 강점을 떠오르는 대로 기술할 것을 요구하였다. 부모가 기술한 아동의 성격 강점의 내용을 분석하여 아동의 성격 기술 용어를 추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근거로 기존의 성격강점 분류표인 VIA(Values in Action)에 비추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평소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성격강점을 기술하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유사한 의미의 내용별로 묶어 범주화한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 아동에게서 추출된 성격기술용어는 60개였다. 이러한 성격기술용어들을 다시 기존의 성격강점 분류표에 따라 범주화한 결과, 60개 중에 기존의 성격강점 분류표에서 제시한 24개의 성격강점과 거의 일치하는 것은 58개였으며, 이 밖에 24개 어느 강점에도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새로운 성격 강점으로서 여유와 무욕(無慾)의 2개의 성격기술용어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한편, 성격기술용어 차원에서 공정함이 전혀 지각되지 않은 것도 두드러지는 점이다. 특히 공정함 강점이 보고되지 않은 것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의 부모들이 아동의 공정함 강점을 지각하는데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사회의 부모들이 자녀의 강점에 대해 기술할 때, 부모들이 지각한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표강점들로는 사회성, 친절, 자기조절, 유머, 활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빈번한 덕목은 인간애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라서는 대표강점별로 사회성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우세하였으며, 그 밖에 친절, 자기조절, 유머, 활력 등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아동, 성격기술용어, 성격강점, 덕목

1)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E-mail : eduwon@snu.ac.kr)

3)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4)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I. 서론

최근 들어 인류의 오랜 화두였던 인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긍정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 안에서 재조명되면서 심리학 분야 중 성격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대 성격이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Allport는 ‘품성과 미덕의 증진’이라는 포부를 안고 사회사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품성과 미덕’이라는 말이 Allport에게는 빅토리아 시대 도덕주의자들의 유물처럼 여겨져 거부감이 들었고, 그는 현대 과학에 더 적합하고 가치가 배제된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성격’은 더욱 과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로서 적합하였다. 결국 도덕적 가치를 지닌 품성과 미덕이라는 개념은 Allport에 의해 훨씬 더 일반적인 개념인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심리학계에 자리 매김 되어 왔다(Seligman, 2004).

동서고금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공존해왔듯이, 인간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권석만, 2008). 심리학계는 그 동안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밝히고 치료하는 데 인류의 에너지를 주로 쏟아왔으나 이런 노력으로 인류의 행복이 증진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최근 심리학계의 관심은 행복이나 강점과 같이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조명하면서 인간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발하고자 했다(Seligman, 2002).

행복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되며, 긍정심리학은 이러한 두 가지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 첫째는 쾌락주의적 입

장으로서 행복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유쾌한 상태라는 관점이다. 즉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인 상태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자기실현적 입장으로서 행복은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성격강점과 덕목을 충분히 계발하고 발휘함으로써 인생의 중요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이다(권석만, 2008).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다양한 특성들이 덕목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중시되는 덕목이 달랐다(Peterson & Seligman, 2004). 1958년에 Jahoda가 긍정적인 정신건강의 공통적 요소들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세기 들어 여러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긍정적인 특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Erikson(1963, 1968, 1982)은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이론을 제시하면서 인생의 단계마다 겪게 되는 도전적 과제와 그 결과로 생성되는 긍정적인 성격특질을 주장하였으며, Maslow(1970)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이 위계적으로 배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Ryff와 동료들(1989, 1995)은 여러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심리적 행복의 구성요소들을 통합하여 6가지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한편, 성격에 대한 어휘적 접근 또한 이루어졌는데, Norman(1963)은 일반적인 성격특성의 기본적 요소를 발견하려는 노력의 결과로써 어휘사전에 나타나는 성격 기술 용어들을 사용하여 성격의 5요인설을 제기하였다. 또한 Cawley, Martin과 Johnson(2000)은 어휘사전을 통해 덕목을 나타내는 140여 개의 용어들을

선별하여 덕목 척도를 개발하였다. 심리 역동적 방어기제 이론에 입각한 Vaillant(1971, 1977, 1993, 2000)은 심리적 건강에 기여하는 성숙한 방어기제들을 제시하였으며, Rokeach(1973)의 가치에 대한 이전의 연구를 이용하여 Schwartz(1994)등은 서로 구별되면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10개의 가치들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최근에 긍정심리학의 초석을 놓은 미국의 Peterson과 Seligman(2004)은 여러 긍정심리학자들과 더불어 인간의 긍정적 특질, 즉 덕목과 성격강점의 분류체계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6개의 덕목과 24개의 성격강점으로 대표되는 VIA(Values in Action)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덕목(virtues)은 도덕 철학자들과 종교사상가들이 가치롭게 여긴 핵심적인 특성으로 지혜(wisdom), 용기(courage), 인간애(humanity), 정의감(justice), 절제(temperance), 초월성(transcendence)을 의미한다. 지혜는 지식의 획득과 사용을 포함하는 인지적 강점이고, 용기는 내적·외적 반대에 직면하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의지의 사용을 포함하는 정서적 강점이며, 인간애는 타인을 돌보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포함하는 대인간 강점이다. 그리고 정의감은 건강한 공동체 삶에 내재하는 시민다운 강점이고, 절제는 무절제를 막는 강점이며, 초월성은 보다 큰 우주와 점진적으로 연결되어 의미를 제공하는 강점이다(Peterson & Seligman, 2004).

이에 덧붙여, 덕목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은 덕목을 정의하는 심리학적 구성요소로 과정이나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

면 이는 하나 또는 다른 덕목을 나타내는 변별 가능한 경로이다. 예를 들면 지혜의 덕목은 창의성, 호기심, 학구열, 개방성과 같은 강점과 연구자들이 통찰이라고 이름붙인 삶에 대한 ‘큰 그림’을 갖는 것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이러한 강점들은 그것이 모두 지식의 획득과 사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도 하면서 또한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이다(Peterson & Seligman, 2004).

Peterson과 Seligman(2004)이 제시하는 24개의 성격 강점 분류를 살펴보면, ‘지혜와 지식(wisdom and knowledge),’의 덕목아래, 창의성(creativity), 호기심(curiosity), 개방성(open-mindedness), 학구열(love of learning), 통찰(perspective), ‘용기(courage)’ 덕목 아래, 용감함(bravery), 인내(persistence), 진정성(integrity), 활력(vitality), ‘인간애(humanity)’ 덕목아래 사랑(love), 친절(kindness), 사회성(social intelligence), ‘정의감(justice)’ 덕목아래 시민의식(citizenship), 공정함(fairness), 지도력(leadership), ‘절제(temperance)’ 덕목아래 용서(forgiveness), 겸손(humility), 신중함(prudence), 자기 조절(self-regulation), ‘초월성(transcendence)’ 덕목아래 감상력(app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 감사(gratitude), 희망(hope), 유머(humor), 영성(spirituality)을 분류하고 있다.

지혜와 지식 덕목 아래 창의성은 사물을 개념화하기 위해 새롭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 호기심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경험에 관심을 갖는 것, 개방성 역시 인지적 덕목인 지혜와 지식에 범주화 되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검증하고 이를 통해 사고하는 것, 증거에 비추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며 하위 설명 언어로 판단력, 비판

적 사고로 정의될 수 있고, 학구열은 새로운 기술, 주제 지식을 숙달하려는 태도, 통찰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도록 세상을 보는 방식을 갖는 것이다. 용기 덕목 아래에 용감함은 신체적 용기를 포함하나 이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반대를 무릅쓰는 것을 포함하며, 인내는 시작한 것을 끝내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던 행동을 계속하는 것, 진정성은 진실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행동하는 것, 활력은 살아있으며 활동적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된다. 용기 덕목 아래에 인내, 진정성, 활력과 같은 강점이 분류된 것은, 용기를 외적 뿐 아니라 내적 반대에 직면하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의지의 사용을 포함하는 정서적 강점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Peterson & Seligman, 2004). 인간에 덕목 아래 사랑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가치를 두는 것, 친절은 타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사회성은 상황에서 적합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정의되며, 정의감 덕목 아래 시민의식은 집단의 역할을 다하는 것, 공정함은 평등하게 대하는 것, 지도력은 구성원을 격려하고 살피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절제 덕목 하에서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 용서하고 단점을 수용하기, 겸손은 주목받으려 하지 않기, 신중함은 자신의 선택에 신중하기, 자기 조절은 자신의 욕구와 정서를 통제하기로 정의되고, 초월성 덕목 아래 감상력은 미, 탁월성, 숙련된 수행을 주목하고 감상하기, 감사는 일어난 일을 깨닫고 감사하기, 희망은 미래에 대해 기대하고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기, 유머는 웃는 것을 좋아하거나 타인에게 웃음을 주기, 영성은 우주의 의미와 보다 높은 목적에

대한 내재적 신념 갖기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Peterson & Seligman, 2004).

한편, 성격강점과 덕목의 측정 측면에서는 대상별로 다양한 측정 도구를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그 성과로써 Peterson(2004)등은 성격강점과 덕목의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측정 척도를 개발하였다. 먼저 성인의 경우는 각 강점별 10문항씩 총 240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청소년용의 경우, 대상의 언어이해력과 실시 시간을 고려하여 성인용 척도의 문항 내용을 수정하고 문항 수를 줄여 현재 19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다만 청소년과 성인들의 강점을 측정하는 설문은 자기보고식으로 10세 이상부터 사용가능하다. 즉 자기보고식 질문지는 인지발달의 한계가 있는 어린 아동들에게도 성격강점과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구조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Park & Peterson, 2006a). 따라서 어린 아동의 경우는 부모가 아동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형식을 취하여 성격강점을 측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성인과 청소년 및 아동의 성격강점 연구는 개개인의 성격강점과 행복이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컨대, 일련의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는 열정, 희망, 사랑, 감사, 호기심이 행복과 상당히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Peterson, Rush, Beerman, Park, & Seligman, 2007), 청소년의 경우는 희망, 사랑, 감사, 열정이 행복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Park & Peterson, 2006b), 아동의 경우는 사랑, 친절, 창의성, 유머, 호기심 순으로 행복과 강한 상관이 나타났다(Park & Peterson, 2006a). 무엇보다 전 생애에 걸쳐 긍정적인 발

달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른 시기의 성격 강점의 표명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어린 나이에 성격의 구성요소를 밝혀 향후 좋은 성격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기에 중재하는 법을 고안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아동의 경우는 타당한 측정도구의 부재로 현재까지 부모 기술 방식을 사용한 한 사례 정도가 보고된 바 있으나(Park & Peterson, 2006a), 그 결과를 한국 아동에게 단순히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실상, 성격강점과 덕목 분류 연구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주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강점 목록을 서로 다른 문화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문화적 보편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성격강점 분류의 문화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지만(Park, Peterson & Seligman, 2006), 이는 성격강점에 있어서 문화간 평균과 순위의 차이만을 보는데 그쳤기 때문에 그 연구에 참여한 국가별 피험자들이 24개 강점 외에 자신이 속한 문화를 반영하여 보고한 구체적인 성격강점 내용까지는 탐색하지 못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성격강점 비교의 타당성을 위해 비슷한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지각한 아동의 성격강점이 기존의 24개 성격강점 분류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조사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특히 개인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행복으로 간주하는 자기실현적 행복의 관점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성격강점의 내용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성격강점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성격강점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학부모가 기술한 성격강점의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부모가 지각하여 묘사한 구체적인 성격 기술 용어를 확인하고, 아동의 성격강점 내용이 덕목별, 성격강점별로 기존의 성격강점 및 덕목 분류표에 비추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성격강점 내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2) 아동의 성격강점 내용은 성격강점별, 덕목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3) 아동의 성격강점 내용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8년 5월에 서울시와 경상남도 소재하는 3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부모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미국의 Park과 Peterson(2004)의 연구가 만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교의 타당성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그와 비슷한 연령대인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생을 통해 개방형질문지를 부모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응답지 또한 다시 학생을 통해 회수하였다. 360부 중에 회수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183명의 응답결과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회수율은 50.8%였다. 이들 중 남학생이 75명(51.02%), 여학생이 72명(48.98%), 그리고 남녀구분을 기입하지 않은 아동이 36명이었으며, 전체 아동의 평균연령은 만 6.481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소 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녀의 성격강점을 기술하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학부모들은 “내 자녀를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자녀에 대해 알고 있는 강점을 써주십시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격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강점이라도 떠오르는 모든 것을 적어주세요.(이하 생략)”라는 질문에 따라 자녀에 대한 한 가지 이상의 강점을 자유롭게 기술하였다.

2.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우선 본 연구는 아동의 수가 아니라 학부모가 자녀에 대해 기술한 응답수를 분석의 단위로 삼았다. 학부모는 대체로 자녀의 성격 특성에 대해 복수로 응답하였으며 응답 내용 중 뛰어난 재능, 건강, 식습관, 청결, 외모, 운동을 좋아함 등과 같이 성격을 진술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은 연구자간의 합의하에 분류에서 제외

하였다. 다음으로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의미에 따라 나눈 다음, 같은 의미를 가진 진술들을 ‘성격 기술 용어’로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60개의 ‘성격 기술 용어’를 추출하였고 이를 Peterson과 Seligman(2004)이 제시한 성격 강점과 덕목 분류표인 VIA(Values in Action)를 기준으로 분류하면서 부모가 기술한 아동의 성격 강점이 VIA에서 제시한 성격 강점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였다. 총 183명의 학부모의 응답지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분석 가능한 전체 응답 내용 수는 1,679개였으며(남아 75명의 726개, 여아 72명의 684개), 한 부모가 평균 9.17개의 응답 수를 보고하였다.

한편, 내용분석법에서의 신뢰도는 주로 둘 이상의 평정자들이 같은 내용을 동일범주로 집계하도록 하고, 그 두 사람 사이의 일치도를 재는 방법으로 계산한다(김병성,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1,679개의 진술문을 연구자들이 각자 적합한 성격기술용어로 코딩하였는데, 2명씩 짝지은 총 3개의 평정자 쌍에서 평정된 전체 성격기술용어 중 완전히 일치하는 비율은 61%~73%였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성격 강점 차원에서의 평정자간 일치하는 비율은 78%~84%였다. 따라서 평정자간 신뢰도는 양호한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동일한 성격 강점 범주에 속하더라도 의미에 있어 미묘한 차이를 보이거나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경우 별개의 성격기술용어로 처리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성격 기술 용어와 성격 강점, 그리고 덕목별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강점 내용 분류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강점 내용을 분류한 성격기술용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즉, 기존의 VIA 분류체계에서 제시한 24개 성격강점별로 성격기술용어를 아래와 같이 추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용어들을 정리하였다.

표 1에서 부모가 기술한 아동의 성격 기술 용어를 성격 강점으로 분류할 때, 서론에서 소개한 VIA(Values in Action)에서 제시한 성격 강점의 개념에 입각하여 분류하였다. 그 결과, VIA(Values in Action)에서 제시하는 24개의 성격 강점으로 범주화했을 때 공정함을 제외하고 강점별로 대체로 일치하는 용어는 총 58개가 추출되었다. 각 성격 강점에 해당하는 성격 기술 용어를 살펴보면, 특히 사회성 강점에 해당하는 기술 용어 들이 매우 다양하게 기술되어 나타났다. 한편, 공정함의 기술 용어는 분석 결과 전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밖에 24개 성격강점 어디에도 범주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여유와 무욕(無慾)의 2개 성격 기술 용어가 추가로 포착되었다. 이 강점들은 매우 낮은 빈도(0.36%)를 나타내어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분류체계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특별히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지각한 아동의 성격 기술 용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들이 분류한 성격기술용어는 기존의 강점들에 부합하는 58개와 추가로 발견된 2개를 합쳐서 총 60개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방성의 개념은 판단력

과 사고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개방성이 인지적 덕목인 지혜와 지식에 범주화된 것은 개방성의 개념이 ‘모든 면에서 검증하고 이를

표 1. 아동의 성격 기술 용어

성격 기술 용어	성격강점
창의적 · 상상력	창의성
호기심	호기심
사고력	개방성
학구열 · 집중력	학구열
지혜로움 · 사려 깊음	통찰
도전정신 · 용감함 · 주관 뚜렷함	용감함
인내심 · 노력 · 끈기 · 근면	인내
정직 · 솔직한 감정표현 · 잘못 인정 · 진정성	진정성
활발 · 적극성 · 열정 · 승부욕	활력
사랑 · 가족애 · 생명존중	사랑
친절 · 다정함 · 배려 · 돌봄	친절
사교성 · 의리 · 인사성 · 공경심 · 애정표현 · 적응력 · 원만함 · 예절	사회성
책임감 · 협동심 · 준법정신	시민의식
----	공정함
리더십	지도력
용서	용서 · 자비
겸손함	겸손 · 겸양
신중함 · 침착	신중함
자제력 · 실천력 · 자립적 · 절약	자기조절
감수성	감상력
감사	감사
꿈 · 낙관성 · 자존감	희망
밝음 · 즐거움	유머
신앙심	영성

통해 사고하는 것, 모든 증거에 공평하게 가중을 두는 것, 증거에 비추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격기술용어 사고력은 개방성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주관적 뚜렷함이라는 기술 용어를 용감함 성격강점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VIA(Values in Action)에서 용감함이라는 개념이 '반대가 있을 때에도 옳은 것에 대해 말하는 것, 평판이 나쁠 때에도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내(persistence)의 개념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던 행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VIA의 분류체계에 따라서 용기 덕목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처럼 용기 덕목 아래에 인내와 같은 강점이 분류된 것은 용기를 '외적 뿐 아니라 내적 반대에 직면하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의지의 사용'을 포함하는 정서적 강점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Peterson & Seligman, 2004). 이러한 이유로, 인내 강점을 용기 덕목에 포함시킴으로써 극기(克己) 등과 같은 자기조절력 강점을 포함하는 절제 덕목과는 구별하고자 하였다.

2. 성격강점 내용의 성격강점별, 덕목별 차이

연구 결과 1에서 추출된 성격기술용어를 성격강점별, 덕목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6개 덕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빈도수에 따라서 인간애(42.12%), 초월성(16.92%), 용기(15.48%), 절제(13.98%), 지혜와 지식(10.02%), 정의(2.28%) 순으로 나타났다. 25개의 성격 강점별로 볼 때

사회성(22.74%), 친절(13.26%), 자기조절(12.18%), 유머(9.72%), 활력(6.54%), 사랑(6.12%), 학구열(5.94%), 인내(3.78%), 희망(3.24%), 용감함(2.94%), 감상력(2.46%), 진정성(2.22%), 시민의식(1.62%), 신중함(1.5%), 호기심(1.44%), 통찰(1.38%), 창의성(0.96%), 지도력(0.66%), 영성(0.6%), 감사(0.54%), 개방성(0.3%), 겸손(0.18%), 용서(0.12%) 공정함(0%) 순이다. 부모가 기술한 아동의 성격강점은 지혜와 지식과 같은 인지적인 강점 보다 인간애 등과 같은 정의적인 강점이 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인간애 덕목하의 세 강점인, 사랑, 친절, 사회성이 모두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사회성(22.74%)은 24개 성격 강점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성격 기술 용어 범주에서 본다면, 사회성 강점 하에서도 사교성, 공경, 인사성의 성격 기술용어가 높은 빈도를 보였고, 사랑 강점 하에서는 가족애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개인주의적 문화보다는 집단주의적 문화를 말해주는 용어들이라고 볼 수 있다.

지혜와 지식 덕목의 성격 강점에서는 창의성(0.96%), 호기심(1.44%), 통찰(1.38%), 개방성(0.3%)에 비해 학구열(5.94%)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Park과 Peterson(2004)의 미국 아동 대상 연구 결과가 창의성, 호기심, 학구열, 통찰, 개방성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용기 덕목의 성격강점 비교에서, 용감함(2.94%), 인내(3.78%), 진정성(2.22%), 활력(6.54%)이 비교적 모두 높게 나왔으며 그 중 활력(6.5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Park과

표 2. 성격기술용어별 · 성격강점별 · 덕목별 응답 결과

성격 기술 용어	빈도(%)	성격강점	빈도(%)	덕목	빈도(%)
창의적 상상력	9(0.54) 7(0.42)	창의성	16(0.96)	지혜와 지식	167 (10.02)
호기심	24(1.44)				
사고력	5(0.3)	개방성	5(0.3)		
학구열	70(4.2)	학구열	99(5.94)		
집중력	29(1.74)				
지혜 사려 깊음	3(0.18) 20(1.2)	통찰	23(1.38)	용기	258 (15.48)
도전정신	14(0.84)				
용감함	9(0.54)	용감함	49(2.94)		
주관 뚜렷함	26(1.56)				
인내심	10(0.6)	인내	63(3.78)		
노력	20(1.2)				
끈기	23(1.38)				
근면	10(0.6)				
정직	9(0.54)	진정성	37(2.22)		
솔직한 감정표현	14(0.84)				
잘못 인정	10(0.6)				
진정성	4(0.24)				
활발	27(1.62)	활력	109(6.54)		
적극성	25(1.5)				
열정	12(0.72)				
승부욕	45(2.7)				
사랑	18(1.08)	사랑	102(6.12)		
가족애	62(3.72)				
생명존중	22(1.32)				
친절	38(2.28)	친절	221(13.26)		
다정함	47(2.82)				
배려	75(4.5)				
돌봄	61(3.66)				

표 2. 성격기술용어별 · 성격강점별 · 덕목별 응답 결과

(계속)

성격 기술 용어	빈도(%)	성격강점	빈도(%)	덕목	빈도(%)
사교성	107(6.42)				
의리	4(0.24)				
인사성	48(2.88)				
공경심	105(6.3)	사회성	379(22.74)	인간애	702 (42.12)
애정표현	47(2.82)				
적응력	18(1.08)				
원만함	40(2.4)				
예절	10(0.6)				
책임감	18(1.08)				
협동심	1(0.06)	시민의식	27(1.62)	정의감	38 (2.28)
준법정신	8(0.48)				
----	----	공정 함	0(0)		
리더십	11(0.66)	지도력	11(0.66)		
용서	2(0.12)	용서 · 자비	2(0.12)		
겸손함	3(0.18)	겸손 · 겸양	3(0.18)		
신중함	8(0.48)	신중함	25(1.5)	절제	233 (13.98)
침착	17(1.02)				
자제력	22(1.32)				
실천력	109(6.54)	자기조절	203(12.18)		
자립적	53(3.18)				
절약	19(1.14)				
감수성	41(2.46)	감상력	41(2.46)		
감사	9(0.54)	감사	9(0.54)		
꿈	5(0.3)				
낙관성	33(1.98)	희망	54(3.24)	초월성	281 (16.92)
자존감	16(0.96)				
밝음	92(5.52)	유머	162(9.72)		
즐거움	70(4.2)				
신앙심	10(0.6)	영성	10(0.6)		
전체	1673(100)	전체	1673(100)	전체	1673(100)

Peterson(2004)의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경우는 인내, 활력, 용기, 진정성의 순으로 인내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활력 강점의 성격 기술 용어를 살펴보면, 활력, 적극적 기술 용어 보다 승부욕 기술 용어가 빈도가 높다.

정의감 덕목하의 성격강점인 시민의식(1.62%), 공정함(0%), 지도력(0.66%)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도 공정함은 전혀 보고되지 않았는데, 이는 공정함 강점이 부모들에게 잘 인지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절제 덕목 하에서는 자기조절(12.18%) 강점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용서(0.12%), 겸손(0.18%), 신중함(1.5%)은 낮은 빈도를 보였다.

초월성 덕목 하에서는 유머(9.54%) 강점이 두드러진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희망(3.24%), 감상력(2.46%)순이며, 감사(0.54%), 영성(0.6%)은 낮은 빈도를 보였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성격강점별, 덕목별 응답분포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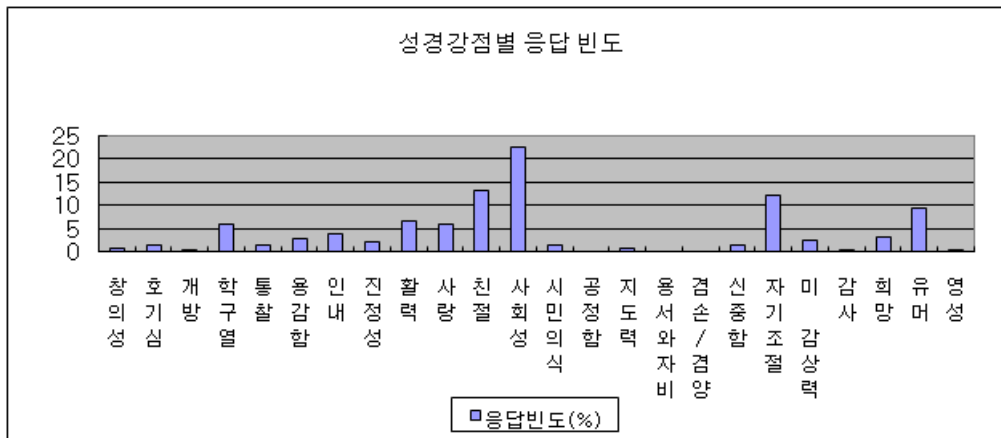


그림 1. 성격 강점별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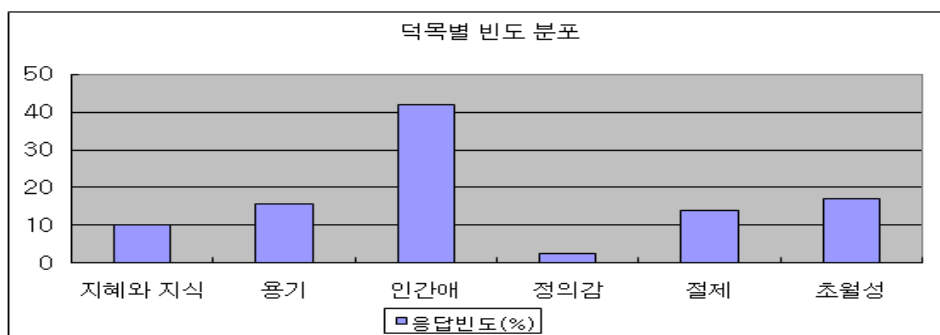


그림 2. 덕목별 응답 분포

3. 성격강점 내용의 성별 차이

본 절에서는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성격강점 내용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서 남녀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결과 분석에 앞서 먼저 성별에 따른 성격강점 분석은 전체 응답자 183명의 학부모 중에서,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은 36명을 제외한 147명의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 중 남아의 부모 75명(51.02%)과 여아의 부모 72명(48.98%)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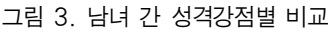
표 3의 남녀별 결과에 따르면, 남녀별 성격강점별 비교에서 부모가 지각한 남녀 아동의 성격강점 분포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상위 5개의 대표강점으로서 사회성, 친절, 자기조절, 유머, 활력 등에서의 남녀

간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성 강점에서 남아(26.58%)가 여아(18.86%)보다 우세하며, 나머지 친절(남: 12.26%, 여: 13.04%), 자기조절(남: 9.37%, 여: 13.45%), 유머(남: 9.36%, 여: 10.37%), 활력(남: 6.34%, 여: 6.43%) 강점에서는 여아가 남아 보다 조금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제시해 보았다(그림 3 참조).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남녀별 성격강점별 비교에서 남녀의 성격강점 분포가 거의 유사하다. 다만 상위 5개의 대표강점으로서 사회성, 친절, 자기조절, 유머, 활력 등에서의 남녀 간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성 강점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우세하며, 나머지 친절, 자기조절, 유머, 활력 강점에서는 여아가 남아 보다 우세한 결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 성별에 따른 성격강점별 응답 결과

덕목	성격강점	빈도		덕목	성격강점	빈도	
		남	여			남	여
지혜와 지식	창의성	5(0.69)	6(0.88)	정의감	시민의식	14(1.93)	8(1.17)
	호기심	14(1.93)	9(1.32)		공정함	0(0)	0(0)
	개방성	1(0.14)	3(0.44)		지도력	5(0.69)	5(0.73)
	학구열	38(5.23)	44(6.43)		용서/자비	0(0)	2(0.29)
	통찰	17(2.34)	4(0.58)	절제	겸손/겸양	2(0.28)	0(0)
용기	용감함	23(3.17)	15(2.19)		신중함	16(2.20)	8(1.17)
	인내	32(4.41)	23(3.36)		자기조절	68(9.37)	92(13.45)
	진정성	18(2.48)	14(2.05)		감상력	15(2.20)	22(3.22)
	활력	46(6.34)	44(6.43)		감사	3(0.41)	5(0.73)
	사랑	35(4.82)	45(6.58)	초월성	희망	17(2.34)	34(4.97)
인간에	친절	89(12.26)	96(14.04)		유머	65(8.95)	73(10.67)
	사회성	193(26.58)	129(18.86)		영성	5(0.69)	3(0.44)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부모가 지각한 아

동의 성격강점별, 덕목별 응답의 차이를 통해 부모가 지각하는 아동의 성격강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가 지각한 대표강점들로는 사회성, 친절, 자기조절, 유머, 활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빈번한 덕목은 인간애로 나타났다. 부모는 아동의 지혜와 지식과 같은 인지적인 강점 보다 인간애, 용기 등과 같은 정의적인 강점을 더 중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적인 강점 중에서도 특히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적 풍토를 반영한 성격강점이 중요하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적 강점은 전반적으로 응답 빈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지적 성격 강점과 비교했을 때 학구열이나 집중력의 성격기술용어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학부모들이 아동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정의감 덕목의 응답 빈도가 다른 덕목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 역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덕목별, 성격강점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적인 강점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Park과 Peterson(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아동의 경우 판단력이나 개방성과 같은 고도의 지적 능력 보다는 대인관계 속에서의 성격이 주요한 강점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아동이 당면한 여러 문제 상황이 지적인 성취나 작업 상황보다는 가족, 또래 등과 같은 사회 속에서 부딪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박영신 등(1999)의 연구 결과에

서 보면 아동의 경우 물질적 지원, 정보적 지원 보다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을 매개로 생활 만족을 이끌어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발달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경우 인지적인 강점 보다 정의적인 강점이 주요하게 평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적 풍토가 반영된 성격기술용어의 경우 서구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과 미국의 연구 결과를 비교해보면 동일하게 정의적인 강점이 우세하게 나타나지만 상황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성격 기술 용어 수준에서 살펴보면 인간애라는 동일한 덕목, 성격 강점인 사랑의 경우 가족애가, 사회성 중 사교성과 공경의 응답빈도가 가장 높았다. 아동이 소속된 가장 밀접한 사회로서 가족, 또래집단은 그만큼 아동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아동이 소속된 집단을 중시하고 이 집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개인의 역할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성격 강점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한국 문화의 특수적 상황의 일면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차경호(2004)는 Ryff의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문화 풍토는 집단이 개인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는 집단 자아 존중감이나 자아가 집단에 수용되는 정도가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개인의 자율성이나 성장 보다는 집단에 보다 긍정적으로 소속되고, 대인관계에 의존함으로써 사회적 지지

를 얻어내는 것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동이 접하는 가장 밀접한 사회인 가족과 또래집단에게 애정을 느끼면서도 이 집단을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원에 대한 애정과, 가족 위계 속에서 위치에 합당한 행위, 집단 속에 안정되게 유착되기 위한 기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강점으로 부모들에게 인식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지혜와 지식 덕목의 성격강점 비교에서, 창의성이나 개방성 보다 학구열, 집중력의 성격기술용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Park과 Peterson(2004)의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경우는 창의성, 호기심, 학구열, 통찰, 개방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학구열, 호기심, 통찰, 창의성, 개방성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학구열과 창의성 강점에서 서로 순위가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화적 차이로서, 응답한 학부모들이 학구열과 집중력의 성격 강점을 보편적으로 중시하고 있음으로 해석될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학구열 강점의 발견에 비해 창의성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맥락이 부족함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아동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유교문화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한덕웅(2002)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문화와 유교문화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한국 문화와 유교 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향학, 학문, 교육존중이 가장 높은 빈도에 포함되었다.

넷째, 정의감 덕목하의 성격강점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의감의 덕목이 낮은 이유는, 부모가 관찰한 설문을 통해서도 시민

의식, 공정함, 지도력의 성격강점이 드러나기 쉬운 상황이 아닌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Park과 Peterson(2004)의 연구 결과에서 공정함이 전체 아동의 6%로 보고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아예 공정함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문화에 비해 한국 문화에서는 아동들에게서 공정함의 성격 강점을 중요한 강점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또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공정함 강점이 보고되지 않은 것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의 부모들에게는 아동의 공정함을 포착할 만한 기회가 적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성격강점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대표강점 중 사회성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우세했으며, 나머지 친절, 자기조절, 유머, 활력 등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결과로 성차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발달적인 차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보완된 후에 성별 차이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다만, Seligman(2004)에 따르면 사람은 저마다 3-4개의 대표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강점은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상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발휘하는 탁월한 특성으로, 그로 인해 큰 만족과 참된 행복을 자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남자와 여자에게 기대하는 성격 강점의 차이뿐만 아니라 아동 개인차가 동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석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학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긍정심리학 분야 중 자기실현적 행복관에 입각

하여 시작된 성격강점과 덕목에 대한 국내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연령대의 성격강점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둘째, 많은 성격강점의 잠재성이 이른 나이에 생겨나서 인생의 특정 시기에 안정된 특질로 굳어진다(Hey, et al., 1999; Park & Peterson, 2006 재인용). 그러므로 이른 시기의 아동들 사이의 성격강점의 개인차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고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록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성격강점이었지만, 그 속에서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된 성격강점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셋째, 행복이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실체화하기 어려운 맹점을 지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과 행복한 사람의 전형을 탐색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행복한 아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성격강점 수준에서 밝혀봄으로써 행복한 아동의 전형을 그려보고 적응·부적응아 상담 및 지도에 있어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성격강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VIA(Values in Action)에 제시된 24가지 성격강점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Park과 Peterson(2004)의 연구와 대비하여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밝히기 위해 비교연구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집

은 184에 불과해 한국 아동이라는 전집을 대표하기에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추후 연구대상의 표집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충분한 표집으로 대표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서울과 경남지역의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제한하였다. 성격강점은 발견하여 계발하고 삶의 장면에 적용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으로, 초기 아동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연구결과는 전적으로 부모가 지각한 내용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아동이 실제로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장면에서 발휘할 수 있는 성격강점을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했다. 이에 덧붙여 본 연구는 부모의 지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한국 아동의 성격강점 특징이나 아동이 지각한 성격강점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의 관찰과 기록이라든지, 구체적인 장면에서 발휘하는 성격강점을 측정하기 위해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학부모의 응답을 성격기술 용어 및 성격강점으로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의견이 다소 개입되었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회문화적인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사회·문화풍토 및 한국인의 성격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다각도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병성 (1996). *교육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박영신 · 김의철 · 김영희 · 민병기 (1999). 초등학교 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15(1), 57-76.
- 백수현 (2008). 아동의 일상생활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대도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훈구 (1997). *행복의 심리학: 주관적 안녕*. 서울: 법문사.
- 차경호 (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청소년학회*, 11(3), 321-337.
- 최석란 · 조성연 · 김선영 (2007). *학술논문작성과 출판*. 서울: 학지사.
- 한덕웅 (1993). 성격특성의 지각차원. *한국심리학회*, 7(1), 198-211.
- 한덕웅 (2002). 한국문화는 유교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 *한국심리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2, 254-260.
- Argyle, M. (2005). *행복심리학*. 김동기 · 김은미 (공역). 서울: 학지사 (2001년 원저 발간).
- Cawley, M. J., Martin, J. E., & Johnson, J. A. (2000). A virtues approach to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997-1013.
- Compton, W. C. (2007). *긍정심리학 입문*. 서은국 · 성민선 · 김진주(공역). 서울: 박학사 (2005년 원저 발간).
-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Erikson, E.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 Maslow, A. H. (1970). *Religion, values and peak experiences*. New York: Viking.
- Norman, W. T. (1963).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 574-583.
- Park, N. S., & Peterson, C. (2006a). Character strengths and happiness among young children: content analysis of parental descrip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323-341.
- Park, N. S., & Peterson, C. (2006b). Moral competence and character strengths among adolescents: The development and the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 for Youth. *Journal of Adolescence*, 29, 891-909.
- Park, N. S.,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Strength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603-619.
- Park, N. S.,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6). Character strengths in fifty-four nations and the US states.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 118-129.
- Peterson, C., Rush, W., Beerman, U, Park, N. S.,

- & Seligman, M.E.P. (2007). Strengths of character,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3), 149-156.
- Peterson, C., & Seligman, M.E.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 19-45.
- Seligman, M. E. P. (2006). 긍정심리학: 진정한 행복만들기. 김인자 역. 서울: 물푸레 (2004년 원저 발간).
- Vaillant, G. E. (1971). Theoretical hierarchy of adaptive ego mechanism.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4, 107-118.
- Vaillant, G. E. (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Little, Brown.
- Vaillant, G. E. (1993). *The wisdom of the ego*.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Vaillant, G. E. (2000). Adaptive mental mechanisms: Their role in a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5, 89-98.
- 1 차원고접수 : 2008. 10. 01.
수정원고접수 : 2008. 12. 01.
최종게재결정 : 2008. 12. 06.

An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s Described by their Parents in Korea

Moon, Yong-Lin

Won, Hyun-Joo

Paek, Sue-Hyeon

Ahn, Sun-Young

Dep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whether it was possible to discern distinct cultural differences from pre-existing classifications pertaining to strengths and virtues of Korean children as described in writing by their parents. 183 parents of first and secon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Seoul and Gyeongnam province were asked to describe any minor traits as well as the distinctive character strengths of their children. The character description terms referring to the children were then extracted after analyzing the results from the written parental descriptions. Based on these terms, categorical differences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e pre-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 VIA(values in Action), and were then also assessed by gender. The data accumulated through the open-questionnaire, asking the parents to detail their children's character traits, was then categorized according to content with similar meaning. Frequency analysis was then performed on these figures. As a result, 60 distinct character description terms were identified regarding Korean children. After categorizing these 60 terms according to the VIA, the known 24 groupings of character strengths were identified, as well as the additional character strengths of composure and generosity. The fact that Korean parents recognized all these traits in their children was an indication of cultural uniqueness. Additionally, the most common representative virtue was humanity and the five signature strengths were social intelligence, kindness, self-regulation, humor, and zest. According to gender, male children were found to be more socialized, while the other four strengths were more present in females.

Key words : children, character description term, character strengths, virtues